법화경 있는 곳이 깨달음의 도량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㉜ 여래신력품

그때 천신들이 허공 속에서 큰소리로 외쳤다.

"한량없고 가없는 백천만억 아승지 세계를 지나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사바세계요, 그곳에 부처님 계시니 이름이 석가모니시니라. 지금 여러 보살마하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전 설하고 계시니 그 경전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니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들께서 보호하고 아끼는 경이니라. 그대들은 마땅히 정성스런 마음으로 기뻐할 것이며 또한 의당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해야 하느니라."

허공에서 나는 이 소리를 들은 중생들이 합장을 하고 사바세계를 향하여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그리고 갖가지 꽃과 향과 영락과 번개와 일산과 온갖 장신구와 진기한 보배와 미묘한 물건들을 모두 함께 사바세계를 향하여 멀리 흩었다. 시방(十方)에서 그 흩은 물건들이 오는 것이 마치 구름이 몰려오듯 하며, 변하여 보배 휘장이 되어 여러 부처님의 위를 두루 덮었다. 이때 시방세계가 탁 트여 막힘이 없어 하나로 되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상행 등 보살들에게 이르셨다.

"부처님들의 신통력은 이렇게 한량이 없고 가없어 불가사의하니라. 만약 내가 이러한 신통력으로 한량없고 가없는 백천만억아승지겁 동안을 뒷사람들에게 부촉하고자 이 경의 공덕을 말하려 해도 능히 다 말할 수 없느니라. 요약해 말하자면 여래의 온갖 법과, 여래의 온갖 자재한 신통력과 여래의 온갖 비밀스러운 법장(法藏) 그리고 여래의 매우 심오한 온갖 일들을 모두 이 경에서 펼쳐 보이고 드러내 설했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여래의 멸도 후에 응당 일심으로 이 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쓰고 말한 그대로 수행하여야 하느니라.

어느 국토에서나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써서 말한 그대로 수행하는 이가 있거나, 혹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동산이든 숲속이든 나무 밑이든 승방이든 집이든 전당이든 산골짜기이든 들판이든 거기에 모두 탑을 쌓아 공양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마땅히 알아 둘 것이니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바로 깨달음의 도량이라. 모든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으시며, 모든 부처님께서 여기서 법륜을 굴리시며, 모든 부처님께서 여기서 열반에 드시기 때문이니니라."

〈여래신력품〉에 나오는 위의 내용은 〈법화경〉에서 가장 환희로운 장면이다. "〈법화경〉이 있는 곳이 깨달음의 도량이다"라는 말이 깊고 미묘한 여운을 남긴다. 〈법화경〉이 불국토의 근원지라는 말이다. 천신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사바세계를 소개하면서 〈묘법연화경〉을 설하고 계시니 예배하고 공양 올리라고 외치는 장면이 매우 드라마틱하다. '나무석가모니불!' 하는 말은 요즈음의 불교의례 가운데 기도 정근의 관용구가 된 말이다. 축원 끝에 으레 세 번을 대중이 합창해 읊는다. 한국불교의 기도 풍습은 특정 불보살의 명호를 반복해 부르는 칭명(稱名)기도가 있고 칭명염불이 있다. 그 칭명하는 의식이 생긴 것이 〈법화경〉의 '석가모니불'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법화경〉이 여래의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인 경전이며, 부처님이 〈법화경〉이 있는 곳에서 무상정각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법화성불'이라는 뜻이다.

세친(世親)이 지은 〈법화경론〉에는 〈법화경〉의 이름을 17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일체제불지도량'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일체제불견고사리'라는 이름도 있다. 〈법화경〉이 제불이 수행하여 성불하는 곳이란 말이고, 〈법화경〉 부처님의 진여법신이 견고한 사리(舍利)와 같아서 만고를 초월하여 그 본체가 부서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흔히 경전에 설해진 부처님 말씀을 '법신사리'라고 말해 오기도 했다. 부처님 법신이 〈법화경〉에 머문다 하여 '제일의주(第一義住)'라는 이름도 있고 근기가 성숙한 보살들을 위해 설한 경이라 하여 '교보살법(敎菩薩法)'이라는 이름도 나온다. 세친의 설명에 의하면 〈법화경〉의 이명(異名)이 가장 많은 셈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보살 수행과 보살계, 뗄 수 없는 관계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㉜ 삼수문(三受門)과 십무진계(十無盡戒)

인도에서 성립한 불교가 동아시아에 정착하면서 이전과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어떤 이는 인도불교와 다른 이질적인 모습에 대해 우려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중국에서 찬술된 경전을 위경(僞經)으로 부르면서 낮게 평가했지만, 최근에는 중국화 된 경전의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한다. 이를 통해 당시 중국인들에게 영향을 끼친 경전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들이 첨가한 내용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대승 경전을 소재로 한 〈범망경(梵網經)〉에는 불성(佛性)이 계(戒)의 근본이 되어 성불할 수 있다고 설하며, 부모에 대한 효(孝)를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경전에는 남북조 시대에 큰 영향을 미쳤던 〈열반경(涅槃經)〉의 불성사상과 중국인들이 중요시하는 효순(孝順)이 스며들어 있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에 범망계(梵網戒)가 큰 거부감 없이 수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반면에 이 경전에는 유가계(瑜伽戒)의 삼취정계(三聚淨戒)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불성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이 경전에서는 일천제(一闡提)는 성불할 수 없다는 유식학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유가계에서 설하는 삼취정계는 대승불교의 보살계를 대표하는 개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까닭에 5세기 후반, 중국에서 성립된 것으로 여겨지는 〈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에서는 〈범망경〉을 소재로 하면서도 삼취정계를 수용하고 있다. 이 경전의 '대중수학품(大衆受學品)'에서는 '모든 계의 근본'을 삼수문(三受門)이라고 설한다. 즉, 섭선법계(攝善法戒)는 팔만사천의 법문이며, 섭중생계(攝衆生戒)는 자(慈)·비(悲)·희(喜)·사(捨)이며, 섭율의계(攝律儀戒)는 10바라이(波羅夷)라고 설한다. 눈에 띄는 변화는 〈범망경〉에서 설하는 10바라이를 섭율의계로 규정한 것이다. 이런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범망경〉의 10중계(重戒)를 수지하고 있다면 보살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보살영락본업경〉에서는 〈범망경〉의 48경계(輕戒)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팔만위의계(八萬威儀戒)를 경계(輕戒)라고 부르며, 만약 범한다면 잘못을 참회하여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설한다. 이런 입장은 팔만위의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기보다 10중계를 반드시 지켜야 할 10바라이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10중계를 범한다면 참회할 수 없고, 다시 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이 경전에서는 10바라이를 10무진계(無盡戒)로 부르고 있다. 보살은 ①살생하지 말아야 하며, ②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며, ③음행(淫行)하지 말아야 하며, ④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야 하며, ⑤술을 팔지 말아야 하며, ⑥고의로 재가나 출가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야 하며, ⑦인색하지 말아야 하며, ⑧화내지 말아야 하며, ⑨고의로 자신을 칭찬하면서 남을 헐뜯지 말아야 하며, ⑩고의로 삼보장(三寶藏)을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이 경전에서는 "모든 보살의 범성계(凡聖戒)는 모두 마음을 체(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실 〈보살영락본업경〉의 요지는 42현성법(賢聖法), 즉 10주(住)·10행(行)·10회향(回向)·10지(地)와 무구지(無垢地)·묘각지(妙覺地)의 실천이다. 이러한 보살의 계위(階位)는 〈화엄경(華嚴經)〉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경전에서는 10주 이전에 10신심(信心)을 첨가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후대에 이 경전은 보살계보다 보살의 수행계위를 설한 경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보살계는 보살이 불도(佛道)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보살의 수행과 보살계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⑧ 이 생에서 반드시 해야 할 천명(天命)

세상에 태어난 이유 꼭 알아야

업생(業生)과 원생(願生)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두가 업력에 의해서만 태어나는 업생(業生)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이미 얻었지만 중생을 구제하려는 원(願)과 대비심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원생(願生)도 있습니다. 이 원생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세상과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이타(利他)적 삶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업생의 사람들은 자기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본능과 업력에만 이끌려 업을 지으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의경〉 '제이설법품'에서 중생들이 업력에 이끌려 윤회 고통을 받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허망하고 비뚤어지게 헤아려서 이것을 이것이라 이것을 저것이라 하며, 이것을 얻었다 이것을 잃었다 하며, 착하지 못한 생각을 일으켜 여러 가지 악한 업을 지어서 여섯 갈래로 윤회를 하며, 모든 괴로운 것을 독하게 죄다 갖추어서 헤아릴 수 없는 억겁을 능히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중생들은 업력이 강해서 세상에 태어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오직 업력이 이끄는 대로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이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이유도 모른 채 '그냥 태어났으니 살아갈 뿐이다'라는 식으로 맹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또다시 윤회 고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자신의 참모습, 영원한 창조주

참모습 깨쳐야 생사윤회 끊어

이는 정말 꿈속에서 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자기의 참 모습을 깨닫는 것만이 어리석은 중생의 삶을 벗어나 부처님과 똑같이 세상을 지혜롭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참 모습을 깨치자

만약 자기의 참모습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꿈속에서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한평생을 잠을 자며 꿈속에서 살고 있다면 이를 어찌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무명에 가려 미혹 속에서 자기의 참 모습을 알지 못한 채 헛된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꿈속에서 꿈을 꾸며 사는 사람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참모습은 삼천대천세계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더라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주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의 참모습을 깨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짓된 자기와 세상에 속지 않고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신앙하는 참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를 오랫동안 신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의 참 모습을 바로 깨치지 못하고 있다면 참된 불자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자 여러분! 만약 불교를 신앙한 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참모습에 대한 깨침이 없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잘못 된 것을 바로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불자가 되고 나아가서는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백만원력결집불사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함께 합니다.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검색

NAVER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동참문의 정기후원

백만원력 결집불사 02-6273-0108~9

대한불교조계종